우상혁 '우상'을 넘다

우상혁이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3을 뛰어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 2m33 훌쩍 뛰어 넘어 현역 최강 바심 제치고 개막전에서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남자 높이뛰기 '현역 최강'으로 평가받는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를 제치고,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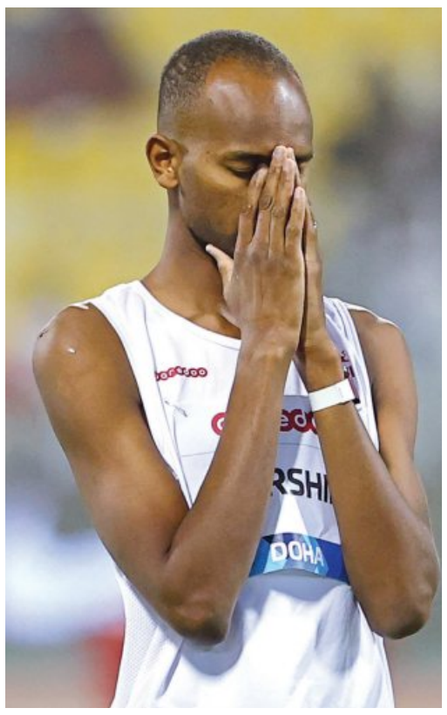
우상혁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3을 넘어 정상에 올랐다.

바심의 홈그라운드 카타르에서, 도쿄올림픽 공동 1위 바심과 장마르코 탬베리(30·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점퍼들을 모두 제치고 거둔 엄청난 쾌거다. 2위 바심의 기록은 2m30이었다.

이날 우상혁이 기록한 2m33은 자신이 보유한 실외 한국기록(2m35)과 실내 한국기록(2m36)보다는 낮지만, 2022년 세계 실외 최고 기록이다.

사실상 시즌이 끝난 2022 실내경기 시즌에서 세계 최고기록(2m36)을 세운 우상혁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 실외 시즌에서도 세계 1위 기록을 만들며 상쾌하게 출발했다. 종전 2022년 실외 최고 기록도 우상혁이 보유한 2m32였다.

이날 우상혁은 2m16을 패스하고, 2m20은 1차 시기에서 가볍게 성공했다.



무타즈 에사 바심

도하에는 남자 장대높이뛰기 경기가 취소될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모두 고전했다. 경기가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

도쿄올림픽 공동 1위이자, 개인 최고 2m39 기록을 보유한 탬베리는 2m24의 벽에 걸려 2m20(7위)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우상혁도 2m24에서 1, 2차 시기에 연거푸 바를 건드리며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3차 시기에서 바를 넘고 가슴을 두드리며 포효한 뒤 환하게 웃었다.

2m27 1차 시기에서도 종아리 위쪽에 바가 걸려 실패했지만, 우상혁은 2차 시기에 가뿐하게 넘은 뒤 중계 카메라를 내려다보며 '자신만만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후에는 거침이 없었다.

우상혁은 "가자, 고"를 외치고, 힘차게 도약해 2m30을 1차 시기에 성공했다.

2m30을 넘은 선수는 우상혁과 바심, 두 명뿐이었다.

'현역 최고' 바심과 '2022시즌 최고' 우상혁의 승부는 2m33에서 갈렸다.

우상혁은 박수를 유도하며 경쾌한 몸놀림으로 2m33을 1차 시기에 넘었다. 우상혁은 매트 위에 누워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해 8월 2020 도쿄올림픽에서 2m35의 한국 기록을 세우며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인 4위에 오른 우상혁은 올해 3월 열린 2022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세계선수권(2m34)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다이아몬드리그 우승도 한국 최초다.

우상혁은 한국인 가운데 최초로 뛰어난 기록을 앞세워 다이아몬드리그에 '초청'받았고, 1위에 오르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

2022시즌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한국 육상 새 역사를 쓰고, 세계 최고 점퍼로 자리매김한 우상혁은 이달 21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해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KIA, 쌍둥이에 설욕 실패

LG 트윈스와 5차전 3-6 패배 기다렸던 재대결 '루징 시리즈'

'호랑이 군단'이 기다렸던 재대결에서 설욕에 실패했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3-6 패를 기록했다.

13일 양현종의 '헤드샷 퇴장' 악재에도 10-1 대승을 거뒀던 KIA지만 14일 '뒷심 싸움'에서 밀리며 3-5 패로 졌고, 이날 '한 방 싸움'에서 패하며 루징시리즈가 기록됐다.

개막 시리즈에서 만나 LG에 2패를 기록했던 KIA는 상승세 길목에서 벌인 재대결에서도 승보다 패를 쌓으면서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4패가 됐다.

선취점은 KIA가 만들었다.

1회초 선두타자 류지혁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2사에서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이어 박동원의 3루 땅볼이 나오면서 소득 없이 이닝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을 잡은 3루수 문보경의 송구가 바운드 도면서 빠졌고 KIA가 행운의 점수를 얻었다.

KIA가 4회초 추가득점의 기회를 잡았다.

선두타자 나성범이 좌전안타로 출루했고, 최형우의 우전 안타로 1사 1·3루가 됐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했고 4-6-3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기회를 놓친 뒤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1사에서 KIA 선발 임기영이 유강남을 볼넷으로 내보냈고, 이천웅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전날 놀린을 상대로 투런포를 날렸던 이재원과 승부가 펼쳐졌고, 초구 직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역전 스리런이 됐다.

1-3으로 뒤진 6회, KIA가 이번에도 상대의 실책으로 점수를 더했다.

2사에서 이우성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류지혁의 안타가 이어졌다. 이때 우익수 홍창기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이우성이 홈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이어진 5회말 수비에서 KIA도 실책으로 점수를 헌납했다.

임기영에 이어 일찍 출격한 이준영이 2사 3루에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윤중현이 세 번째 투수로 나왔고 유강남을 상대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면서 그대로 이닝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찬호의 송구가 높게 벗어나면서 아쉬운 실점이 올라갔다.

연속 안타로 시작한 6회말에는 3루 주자를 협살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지만, 박해민의 희생플라이로 2-5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8회초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KIA가 박찬호의 우전안타와 나성범과 최형우의 볼넷으로 2사 만루를 만들며 상대를 압박했다. 소크라테스가 풀카운트 승부를 벌였지만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득점 없이 공격이 마무리됐다.

이어진 8회말 수비에서는 전상현이 1사에서 이재원에게 좌월솔로포를 허용하면서 2-6이 됐다.

9회초 관중석을 가득 채운 KIA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홈런포가 나왔다.

최정용의 대타로 나선 임석진이 LG 이우찬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날렸다. 지난 9일 SSG와의 트레이트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임석진이 세 타석 만에 기록한 안타이자, 2016년 프로 데뷔 이후 처음 기록한 홈런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홈 9연승 질주

안산에 2-0 승 K리그2 선두

광주FC의 홈 9연승 질주가 펼쳐졌다.

광주가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K리그2 15라운드 경기에서 허율과 하승운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리그 9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함께 홈 9연승(FA컵 포함)을 달렸다. 리그 경기로는 홈 8연승이다.

이는 K리그 시도민 구단 최다 홈 연승 타이 기록이다. 앞서 2017년 경남FC가 8연승을 달린 적이 있다. 최다 연승 기록은 FC 서울의 9연승이다. 광주의 최다 홈 연승 기록은 2019년 기록한 6연승이다.

전반전은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광주가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공세에 나섰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13분 엄지성을 시작으로 이으뜸에 이어 마이키에게 공이 연결됐다. 마이키가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하려 했지만 수비수에 막혔다

전반 21분에는 엄지성의 헤더가 골대 맞고 바깥쪽으로 흘렀고, 헤이스의 헤더도 골대를 벗어났다.

초반 머리로 공세를 벌였던 광주가 37분 헤이스의 중거리 슈팅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렸지만 정확성이 떨어졌다.

상대의 두터운 수비에 막힌 광주가 후반전 선수 교체 카드를 활용해 상대 빈틈 뚫기에 나섰다.

이정효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허율을 넣어 크로스 득점 가능성을 높였고, 좌우 전환으로 상대의 틈을 벌리기 위해 이순민을 투입했다.

이정효 감독의 전략이 통했다.

이순민이 좌우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흔들었고, 후반 8분에는 허율이 득점포를 장식했다.

중원에서 박한빈이 길게 올린 공을 잡은 허율이 신장 이점을 활용해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로 공을 때려 골대를 갈랐다.

후반 12분에는 박한빈이 엄지성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를 시도했지만 벗어났다. 22분에는 교체 멤버로 투입된 이순민이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 슈팅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후반 40분에는 안산의 프리킥 공격이 전개됐다. 까뇨뚜의 직접 슈팅을 골키퍼 김경민이 품에 안으면서 위기를 넘긴 광주.

후반 41분 '홈 9연승'을 확정하는 쐐기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후반 36분 투입된 하승운이었다.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은 하승운이 상대 수비수 이와세와의 몸싸움에서 버틴 뒤 오른발로 슈팅을 날려 안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광주가 4분의 추가까지 잘 버티면서 연승행진을 이었다.

광주FC의 허율이 15일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8분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정효 감독은 "전반에 상대가 내려서 수비했는데 대응하는데 서툰 면이 있었다. 인내 가지고 찬스를 만들었다. 슈팅 수도 적고 찬스도 많이 못 만들었는데 숙제라고 생각한다.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더 많은 찬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찌 됐든 김경민이 수비 라인 이끌면서 무실점으로 해줬다"고 무실점 승리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하승운의 이적 후 첫 골도 이날 경기의 성과다.

이정효 감독은 "허율이 골을 넣은 것도 좋았지만 하승운의 골도 기쁘다. 기량에 비해 성장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골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자신 있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골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이어간 것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전에 (리그) 홈 7연승이라는 것을 들었다. 홈팬들에게 이런 경기력, 투혼을 발휘한다면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응원을 해주실 것 같다.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찾아와주신다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전웅태, 근대5종 월드컵 역대 최고점 우승

3차 대회 결승에서 1537점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27·광주시청·사진)가 이번 시즌 들어 처음 출전한 월드컵 대회에서 '역대 최고점'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웅태는 1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알베나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1537점을 따내 정상에 올랐다.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 근대5종의 올림픽 메달 숙원을 푼 전웅태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선 월드컵 대회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지프 충(영국·1501점) 등을 제치고 시상대 맨 위에 서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재확인했다.

전웅태의 월드컵 개인전 입상은 지난해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21 시즌 2차 대회 우승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웅태를 비롯한 한국 근대5종 대표팀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등을 치르느라 이번 대회를 통해 시즌 국제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시즌엔 기존 예선, 결승 체제에서 중간에 준결승이 추가되는 경기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전웅태는 이 방식으로 처음 치른 대회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특히 그는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35경기 중 무려 31승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보너스 라운드 점수를 포함한 펜싱 총점에서는 284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승마, 수영, 레이저 런(사격+육상)에서도 고른 기량을 뽐낸 그는 총점에서도 1537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작성했다.

전웅태는 UIPM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경기 방식 변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즌 첫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자부에 함께 출전한 서창완(전남도청)이 6위(1491점), 정진화(LH)가 8위(1473점)에 자리했고, 여자부에선 김선우(경기도청)가 8위(1363점), 김세희(BNK저축은행)가 16위(1천333점)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